

수능특강 63쪽



속미인곡 | 정철

데 가는 더 각시 본 듯도 혼더이고.

㉠천상(天上) 백옥경(白玉京)을 엿디흐야 이별(離別)호고

히 다 더 저문 날의 눈을 보라 가시논고  
 어와 네여이고 ㉡이내 스절 드러 보오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암 즉 혼가마논  
 엿딘디 날 보시고 네로다 너기실식  
 나도 님을 미더 군쁘디 전혀 업서  
 이리야 교퉁야 어즈러이 혼듯편디  
 반기시논 듯비치 네와 엿디 다르신고  
 누어 실각호고 니러 안자 헤여하니  
 내 몸의 지은 죄 피마티 빠혀시니  
 하늘히라 원망호며 사름이라 허물호라  
 설위 플터 헤니 조물(造物)의 타시로다  
 글란 실각 마오 미친 일이 이셔이다  
 님을 피셔 이셔 님의 일을 내 알거니  
 물 그튼 얼굴이 편호실 적 몇 날일고

㉢춘한(春寒) 고평(苦熱)은 엿디흐야 디내시며

추일(秋日) 동천(冬天)은 뒤라셔 피섯논고

죽조반(粥早飯) 조석(朝夕) 피 네와 굶티 세시논가  
 기나긴 밤의 잠은 엿디 자시논고  
 님 다히 소식(消息)을 아쁘려나 아자 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너일이나 사름 올라  
 내 마음 둘 디 업다 어드러로 가자 말고  
 잡거니 밀거니 놓픈 피히 올라가니

㉣구름은 크니와 안개는 므스 일고

산천(山川)이 어둡거니 일월(日月)을 엿디 보며  
 지척(咫尺)을 모러거든 천리(千里)를 바라보라  
 출하리 물그의 가 비길하나 보라 하니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둥정 된더이고  
 샹공은 어디 가고 뵈 빈 비만 걸렸논고

강천(江川)의 혼자 서서 디는 히를 구버보니  
 님 다히 소식이 더욱 아뜩흔더이고

㉤모침(茅簷) 춘 자리의 밤등만 도라오니

반벽청등(半壁靑燈)은 놀 위호야 불갓논고  
 오르며 누리며 헤쓰며 바자니니  
 저근덧 역진(力盡)호야 꽃즙을 잠간 드니  
 정성(精誠)이 지극호야 꿈의 님을 보니  
 옥(玉) 그튼 얼구리 반(半)이나마 늘거세라  
 막음의 머근 말슴 슬궤장 숲자 하니  
 눈물이 바라 나니 말슴인들 어이호며  
 정(情)을 못다 호야 목이조차 떼여하니  
 오던된 계성(鷄聲)의 잠은 엿디 쉼뎡고

㉥어와 허사(虛事)로다 이 님이 어디 간고

결의 니러 안자 창(窓)을 열고 바라보니  
 어엿븐 그림재 날 조출 썬이로다

[가] 출하리 쇠여디여 낙월(落月)이나 되야이셔  
 [가] 님 겨신 창(窓) 안히 번드시 비취리라  
 각시님 들이야 크니와 구준비나 되쇼서

- 정철, <속미인곡(續美人曲)>

▶ [서사(1~13행)] 임과의 이별과 자책 [본사(14~42행)] 임에 대한 그리움과 독수공방의 외로움 [결사(43~48행)]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

[현대어 풀이]

저기 가는 저 각시 (어디서) 본 듯도 하구나. / 임이 계시는 궁궐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 해 다 저서 저문 날에 누구를 만나러 가시는가. / 아, 너로구나. 내 이야기 들어보오. / 내 모습과 이 행동이 임에게 사랑 받을만한가마는 / 어찌된 일인지 너를 보시고 너로구나 (하며 특별하게) 여겨 주시기에 / 나도 임을 믿어 댄 생각이 전혀 없어 / 응석과 애교를 부리며 지나치게 굴었던지 / 반기시는 얼굴빛이 옛날과 어찌 다르신고. / 누워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생각해 보니 / 내 몸의 지은 죄가 산처럼 쌓였으니 / 하늘을 원망하겠으며 사람을 탓하겠는가. / 서러워 풀어 생각해보니 조물주의 탓이로다. /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오. / 마음속에 맺힌 일이 있습니다. / 예전에 임을 모시어서 임의 일을 내가 알거니 / 물같이 연약한 육체가 편하실 때가 몇 날일고. / 이른 봄의 꽃샘추위와 여름의 더위는 어떻게 지내시며 / 가을과 겨울은 누가 모셨논고. / 자릿조반과 아침 저녁 진지는 예전과 같이 잡수시는가. / 기나긴 밤에 잠은 어찌 주무시는가. / 임 계신 곳의 소식을 어떻게 해서라도 알려고 하니 / 오늘도 거의 저물었구나. 내일이나 (임의 소식을 전해 줄) 사람이 올까. / 내 마음 둘 곳이 없다. 어디로 가잔 말인가. / (나무, 바위 등을) 잡기도 하고 밀기도 하면서 높은 산에 올라가니 /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안개는 무슨 일로 끼어 있는가. / 산천이 어두운데 해와 달을 어떻게 보겠으며 / 가까운 곳도 모르는데 천리나 되는 곳을 (어찌) 바라볼 수 있으랴. / 차라리 물가에 가서 뱃길이나 보려고 하니 / 바람과 물결로 어수선하게 되었구나. / 샹공은 어

디 가고 빈 배만 걸려 있는가. / 강가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 임 계신 곳 소식이 더욱 아득하기만 하구나. / 초가집의 찬 잠 자리에 한방중이 돌아오니 / 벽 가운데 걸린 등은 누구를 위하여 밝혀 놓았는가. / (산을) 오르내리며 (강가를) 헤매며 방황하니 / 잠깐 사이에 힘이 다해 풋장을 잠깐 드니 /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임을 보니 / 옥 같은 얼굴이 반도 넘게 늙어 있구나. / 마음 속에 품은 생각을 실컷 사퇴려고 하니 / 눈물이 바로 나니 말인들 어찌 하며 / 정을 풀지도 못하여 목조차 메니 / 방정맞은 닭 울음소리에 잠은 어찌 깬단 말인가. / 아, 헛된 일이다. 이 임이 어디 갔는가. / 잠결에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 가엾은 그림자만이 나를 따를 뿐이로다. / 차라리 죽어서 지는 달이나 되어 / 임 계신 창 안에 환하게 비치리라. / 각시님, 달은커녕 곳은 비나 되소서.



〈속미인곡〉

☑ 시구 풀이

- **때 가는 더 각시 본 듯도 혼더이고.**
  - 저기 가는 저 젊은 여인 (언제 어디선가) 본 것 같구나.
  - 상대방의 정체를 식별했다. '아는 사람'인 거다. 갑녀는 언젠가 천상계를 방문한 적이 있고, 그때 천상계에서 을녀를 본 적이 있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 **천상(天上) 백옥경(白玉京)을 엇디하야 이별(離別)호고/ 허 다 더 저문 날의 늙을 보라 가시논고**
  - 천상계의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가 저문 날에 누구를 만나러 가시논고?
  - 하늘 위의 백옥경은 임금이 계시는 궁궐을 의미하며, 백옥경과 이별하였다는 것은 화자가 임과 이별한 처지라는 것을 보여 준다. 또한 '해 다 저문 날'이라는 시간적 배경은 화자의 쓸쓸한 상황을 더욱 강조하고 애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 **어와 네여이고 이내 스쥔 드러 보오**
  - 아, 너로구나. 내 사정 들어보오.
  - 을녀도 갑녀의 정체를 식별했다. 자신의 사연을 끄집어낸다.
-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피얌 즉 혼가마논/ 엇단디 날 보시고 너로다 녀기실시/ 나도 님을 미더 군쁘디 전혀 업서**
  - 내 얼굴 이 거동이 임 사랑 받을 만할까만 어떤 일로 날 보시고 너로다 (특별히)여기시니 나도 임을 믿어 판 생각이 전혀 없어
  - 자신의 모습이 불품없지만 임이 자신을 사랑하기에 자신도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화자의 임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믿음의 자세를 보여 주는 구절이다.
- **이티야 교티야 어즈러이 호똥쥔디**

- 응석과 아양을 부리며 어집럽게 굴었던지
- 을녀 자신이 짐작하는 '님의 변심 이유'다.
- **반기시는 늦비치 네와 엇디 다릅신고**
  - 반기시는 얼굴빛이 옛날과 어찌 다르신고
  - 아무튼 임은 달라졌다.
- **내 몸의 지은 죄 산같이 쌓였으니 하늘을 원망하며 다른 사람을 탓할까 / 서러워 풀어 헤아리니 조물(造物)의 탓이로다**
  - 임과 헤어지게 된 이유가 자신의 죄 때문(사정)이라고 생각하며, 또 조물주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화자의 운명론적인 인생관이 나타나는 구절이다. 또한 임금을 원망하지 않는 신하의 자세를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 **글란 생각 마오**
  - 그런 생각은 마오.
  - '그런 생각'이란 '자책'을 가리키는 것일 게다.
- **딴 일 이 이셔이다/ 님을 피셔 이셔 님의 일을 내 알거니/ 물 ㄹ튼 얼굴이 편호실 적 몇 날일고/ 춘한(春寒) 고열(苦熱)은 엇디하야 디내시며/ 추일(秋日) 동천(冬天)은 뉴라셔 피섯논고/ 죽조반(粥早飯) 조석(朝夕) 되네와 굶티 세시논가/ 기나긴 밤의 잠은 엇디 자시논고**
  - 과거에 임금을 모신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임을 염려하는 화자의 자상한 모습이 드러나 있다. '땀한 일'은 임에게 사랑을 다하지 못한 점, 곧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지 못한 점, 임금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점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운 마음을 담고 있다.
- **님 다히 소식(消息)을 아쁘러나 아자 하니/ 오늘도 거의 로다 닉일이나 사툼 올라**
  - 임 계신 곳의 소식을 어떻게 해서라도 알려고 하니 / 오늘도 거의 저물었구나. 내일이나 (임의 소식을 전해 줄) 사람이 올까.
  - 임에 대한 그리움으로 하루하루를 지내며 탄식하는 화자의 모습을 표현한 구절로, 임의 소식을 전해 줄 '사람'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이 드러나고 있다.
- **내 마음 둘 티 업다 어드러로 가랏 말고**
  - 내 마음 둘 곳이 없다. 어디로 가잔 말인가.
  - 임의 소식을 알고 싶지만 알 길이 없다. 을녀의 내면은 안정되지 않았다. 어디든 움직여야 할 것 같다.
- **잡거니 밀거니 좁픈 피히 올라가니**
  - (나무, 바위 등을) 잡기도 하고 밀기도 하면서 높은 산에 올라가니
  - 앞산 '산'의 가계 된다. 중요한 대목이다. 을녀는 공안을 이루는 게다. 그 첫 번째가 '산'이다. 산으로 간 이유는 일월을 보기 위해서이고, 임 계신 곳을 바라보기 위해서이다.
- **구름은 ㄹ니와 안개는 므스 일고**
  -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안개는 무슨 일로 끼어 있는가.
  - 구름과 안개로 인해 임이 계신 곳을 볼 수 없음을 의미한다. '구름'과 '안개'는 화자와 임 사이를 가로 막고 있

는 장애물로, 당시에 조정을 어지럽히던 간신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 산천(山川)이 어둡거나 일월(日月)을 엮다 보며/ 지척(咫尺)을 모르거든 천리(千里)를 바라보라

- 산천이 어두운데 해와 달을 어떻게 보겠으며 / 가까운 곳도 모르는데 천 리나 되는 곳을 (어찌) 바라볼 수 있으랴.

- 일월은 해와 달로 임금을 상징하며 산천이 어둡다는 것은 당시의 부정적인 시대 상황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화자가 임(임금)을 걱정하는 마음이 더욱 심화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 출하리 물가의 가 비길이나 보라 하니

- 차라리 물가에 가서 뱃길이나 보려고 하니

- **관안 이물 임 소식을 듣기 앞서 '산'에서 소식 알기에 실패한 울라는 '강'으로 가는 것이다.**

•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등정 윈더이고

- 바람과 물결로 어수선하게 되었구나.

- 중요한 문장이다. 이 강에도 '임'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물이 있다. '바람'과 '물결'이다. 이것들이 뱃길을 막고 있다. 정리하면 '구름, 안개, 바람, 물결'→ 장애물, 정적들

• 샹공은 어디 가고 뵈 빈 비만 걸렸는고

- 임에 대한 그리움으로 방황하는 화자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특히 '빈 배'는 화자의 쓸쓸하고 외로운 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객관적 상관물로 작용한다.

• 강천(江川)의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님 다히 소식이 더욱 아득한더이고

- 강가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임 계신 곳 소식이 더욱 아득하기만 하구나.

- 결국 강에서도 '임 소식'을 듣는 데 실패한 것이다.

• 모침(茅簷) 촌 자리의 밤등만 도라오니

- 초가집의 찬 잠자리에 한밤중이 돌아오니

- **이제 실재로 다시 돌아온다. 울라는 공간은 이항하고 있다.**

• 반벽청등(半壁靑燈)은 늘 위하야 불갠는고

- 벽 가운데 걸린 등은 누구를 위하여 밝혀 놓았는가.

- 중요한 이미지이다. '청등'은 특별한 의식이 있을 때 내걸어 두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맥에서 '청등'은 임에 대한 기다림을 보여주는 시어가 된다. 허나 그 청등으로 맞고 싶은 임은 오지 않는다. 덩그러니 홀로 걸린 청등, 외로움과 쓸쓸한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시각적 이미지이다.

• 오르며 느리며 헤쓰며 바자나니

- (산을) 오르내리며 (강가를) 헤매며 방황하니

- 임을 그리워하며 임의 소식을 알고자 하는 화자가 산과 강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녔던 낮 시간의 행위들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표현한 구절로, 심리적인 그리움이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 저근덧 역진(力盡)하야 풋짐을 잠간 드니

- 잠간 사이에 힘이 다해 풋짐을 잠간 드니

• 옥(玉) ㄹ튼 얼구리 반(半)이나마 늘거세라

-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꿈으로도 성취되는 순간이지만 임은 자신의 걱정대로 많이 변해버렸다는 것으로, 이것은 자신이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변했을 것이라는 마음도 담겨 있다.

• 마음의 머근 말씀 슬라장 숲자 하니/ 눈물이 바라 나니 말씀인들 어이하며

- 마음 속에 품은 생각을 실컷 사되려고 하니 / 눈물이 바로 나니 말인들 어찌 하며

- 꿈에서나마 마음에 먹었던 말, 화자의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의 말을 마음껏 하려고 하지만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반가움과 슬픔으로 차마 말을 잊지 못하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낸다.

• 정(情)을 못다 하야 목이조차 떼여하니/ 오던된 계성(鷄聲)의 잠은 엮디 켜뎡고

- 정을 풀지도 못하여 목조차 메니 / 방정맞은 닭 울음소리에 잠은 어찌 깰단 말인가.

- '계성'은 잠을 방해하는 존재이고, 꿈 속의 만남을 종결시키는 존재고, 한마디로 '임과 나 사이의 방해꾼'이다.

• 어와 허사(虛事)로다 이 님이 어디 간고

- 아, 헛된 일이로다. 이 임이 어디 갔는가.

• 결의 니러 안자 창(窓)을 열고 바라보니

- 잠결에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 가엸은 그림자 날 좇을 뿐이로다

- 꿈 속에서 잠깐 임을 보고 헤어진 후의 화자가 느끼는 외롭고 쓸쓸한 심정을 그림자만이 자신을 따르고 있다고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출하리 식여디여 낙월(落月)이나 되야이셔/ 님 겨신 창(窓) 안히 번드시 비취리라

- 차라리 죽어서 지는 달이나 되어 / 임 계신 창 안에 환하게 비취리라.

- 죽어서라도 임을 따르겠다는 간절한 의지를 담은 구절로, 임금을 향한 신하의 일편단심을 드러낸다. 그러나 자신을 '낙월(지는 달)'로 표현함으로써 멀리서 바라만 보는 소극적인 형태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각시님 돌이야 쿠니와 구준비나 되쇼셔

- 각시님, 달은커녕 굶은 비나 되소서.

- 울녀가 소극적인 사랑의 표현으로서 '낙월'이 되겠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 갑녀는 좀 더 적극적인 사랑을 비유한 '굶은 비'가 되라고 하며 울녀를 위로하고 있다.

☑ 특징

- 갈래: 서정가가, 정격가사
- 성격: 서정적, 여성적, 연모적, 충신연주지사
- 3(4)·4조, 4음보의 연속체
- 연군지정을 독백의 형식으로 드러낸 '사미인곡'과 달리 **대화체의 형식**으로 이루어짐.
- '사미인곡'의 속편으로 갑녀와 을녀 두 여인을 등장시켜 임(임금)을 향한 일편단심을 간곡하게 노래하는 **충신연주지사**의 대표작.
- 우리말 구사의 극치를 보여 줌
- 순우리말의 세련됨과 아름다움을 표현하여 가사 문학 중 가장 문학성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음

✓ 시어의 의미

'구름' '안개'	임을 향한 화자의 마음에 방해 요소로 작용	→	자연물은 임과 화자의 사랑을 방해하는 기쁨함.
'복랍' '물결'	화자가 임에게 가는 것을 가로 막는 장애 요소		
낙월	떨어서 잠깐 동안 임을 바라보다가 사라지는 존재	→	임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는 화자의 절망감을 드러냄
구준 비	• 임을 그리워하는 을녀의 눈물 • 갑녀가 제시하는 감정 해소의 방식	→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임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는 화자의 태도를 엿볼 수 있음

'낙월'은 단지 하늘에 떠 있으면서 지상의 존재를 바라볼 뿐인 소극적인 존재인 데 반해, '구준 비'는 하늘에 머물지 않고 대상이 있는 지상으로 직접 떨어지 내릴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존재이다. 따라서 갑녀의 '구준 비'가 되라는 말은 슬픔에 빠져 소극적으로만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전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두 화자의 성격

갑녀(甲女)	을녀(乙女)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을녀의 하소연을 위선하고, 더욱 극적으로 작품의 결말을 짓게 함</li> <li>• 작품의 전배와 종결을 위한 기성적 역할을 함</li> <li>• 보조적 위치에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갑녀의 질문에 응하여 신세 한탄을 함으로써 작품의 정서적 분위기를 주도함</li> <li>• 작품의 주제 구현의 중추적 역할을 함</li> <li>• 작가의 처지를 대변하는 중심 화자</li> </ul>

✓ '사미인곡'과 엮기 읽기

출하리 식어디여 **범나브** 외오리라.  
 곳나모 가지마다 간 **딕** 족족 안니다가,  
 향 **므든** 놀애로 **님의** 오식 올므리라.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 **님** 조초려 **ㅎ노**라.  
 - 정철, <사미인곡>

→ <사미인곡>과 <속미인곡> 두 작품에서는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각각 '범나브'와 '구준 비'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사미인곡>에서는 임이 자신을 몰라주더라도 '범나브'가 되어 임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하지만, <속미인곡>에서는 '낙월'이 되겠다는 '을녀'에게 '갑녀'가 임의 뜻을 적실 '구준 비'가 되어 임에게 절절한 사랑을 전달하라고 한다. 이로 보아 <속미인곡>의 '구준 비'가 임에 대한 사랑을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정철 <속미인곡>

- 주제: 임금을 그리워하는 정
- 해제: 이 작품은 정철이 지은 가사로, 작가가 조정에서 물러나 불우한 세월을 보내면서 <사미인곡>에 뒤이어 지은 것이다. <사미인곡>과 마찬가지로 조정의 정치를 근심하고 임금을 그리워하는 내용인데, 고유어 표현이 많고 두 여인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작품 속의 화자는 두 여인으로, 여인 1은 작품 내용을 이끌어 가면서 길에서 만난 각시 화자인 여인 2에게 질문하며 여인 2의 말을 듣고 위로하거나 조언을 해 주고 있다. 이 작품은 충신연주지사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임금의 소명을 기다리는 마음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구성
  - [서사(1~13행)] 임과의 이별과 자책
  - [본사(14~42행)] 임에 대한 그리움과 독수공방의 외로움
  - [결사(43~48행)]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